

대학 '계약정원제' 시행... 첨단 계약학과 운영 쉬워진다

교육부, 산학협력법 시행령 등 개정

앞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대학에 관련 계약학과를 개설하지 않고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해진다. 기존 학과에서 정원 외 학생을 추가로 모집하는 '계약정원제'가 6월부터 적용받게 되면서다. 실질적으로 첨단산업 계약학과 설치 제한이 줄어들고 해당 분야 산업체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 강도가 대폭 약해지면서 전국 대학의 첨단 계약학과 설립 및 운영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산업 환경 변화와 첨단분야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을 개정한다.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계약학과 설치없이 학과에 추가 채용조건형·재교육형으로 운영 입학정원의 50%까지 정원의 선발 운영경비·지역 등 산업체 부담 ↓

용받게 된다.

◆별도 첨단 계약학과 설치 안 해도 기존 학과에 운영 가능

계약학과 제도는 대학 교육에 산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계약학과를 신설한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하지만, 학과 개설 및 운영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았다.

규제 완화에 따라 대학이 계약한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나뉜다. 채용조건형은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교육형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회사추천 및 면접 등으로 선발해 교육이 이뤄진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4년제 대학에서

채용조건형 111개, 재교육형 444개 등 555개 계약학과가 운영 중이다.

특히 앞으로는 첨단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대학은 전체 입학정원의 최대 50%까지 첨단분야 계약학과 신입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계약학과는 총 입학정원의 최대 20%를 넘지 못했다. 재교육형은 첨단분야여도 20% 제한이 유지되지만, 교육부장관 인정 시에는 학생 정원의 50%까지 모집할 수 있다.

◆산업체 투자 부담 줄이고 온라인 수업 늘리고

산업체의 운영 경비 부담 비율은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져 부담이 줄어든다.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도 산업체의 동일 권역에서 벗어나 전국 어느 대학이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해당 기업과 50km 이내에 있는 대학에서만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수도권

에 있는 기업과 협약을 맺고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해 계약학과 수업의 50% 이내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 승인을 받을 경우 100%까지도 가능하다.

이동 수업도 자유로워진다. 교육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는 대신 앞으로는 대학 자체로 학칙에 따라 이동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계약정원제 학부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 석·박사 과정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 단, 대학이 산업체와 협약하기 2주 전 교육부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아직 신고한 대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원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돼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파주시가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 50만 시민 교통안전에 팔걸어

파주경찰서 등 5곳과 업무협약

파주시는 22일, 50만 시민의 교통안전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와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교통안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돼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파주시 교통안전의 현 위치를 확인하고, 유관기관별 맞춤형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을 통해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5월 24일 (수)
음력: 4월 5일

수도권 날씨
15~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11/27, 동두천 12/27, 가평 11/27, 양평 12/27, 용인 15/26, 평택 12/27, 수원 15/26, 인천 15/23, 서울 15/27, 파주 10/26, 백령도 14/2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대학 용적률 완화... 한양대 의과대 신축 시동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7월 시행 연세의료원, 공간 재배치 계획 세워

서울시는 오는 7월 대학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연세대, 한양대 등이 공간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성장 시설을 확충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 자연경관지구내 대학시설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는 7월 공포·시행된다.

한양대와 연세대는 융복합 의료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단계별 순환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시는 이를 지원하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이달 11일 완료했다. 한양대는 현재 용적률 사용률이 99%에 달하고, 약 58%가 자연경관지구 내 있어 대학 내 노후 의료시설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의과동 신축 사업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연세대학교 내 연세의료원은 의료와 교육 클러스터를 분리하는 공간 재배치·활용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연세대는 의과대 신축을 시작으로 필요한 곳에 완화 받은 용적률을 사용할 수 있는 혁신성장구역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

24개월 영아에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권

서울시, 아기 한명당 10만원 지원

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의 외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을 받은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엄마아빠택시는 24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탑승 희망자는 'i.M(아이.엠) 택시'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양육자다. 영아를 기준으로 부모와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아기 한명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한다. 신청 후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해 승인하면 영아 1인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이 포인트 형식으로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시

바로 지급된다. 포인트를 받은 양육자는 택시 앱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시는 이달 24일부터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16개 자치구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시범 운영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백호 前 도시교통실장

서울시는 23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백호 전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백신임 사장은 단국대 행정학과(학사),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한 백 신임 사장은 서울시에서 교통기획관으로 근무하며 교통 실무 경험을 쌓았다. 백 신임 사장은 광진구청 부구청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등을 역임했다.

시는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 및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검찰, 라덕연 일당 국내외 은닉재산 추적...이번주 기소
▲ 택배 마약에 놀란 軍...신검에 마약 검사 추가 /사진 뉴시스

▲ '5억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회장, 징역 3년6월
▲ 검찰 "KH 배상윤, 동남아 카지노서 수백억 쓰며 황제도피"



▲ '2.3조원대 빌트인 담합' 한샘·에넥스 등 가구업체 8곳 "혐의 인정"
▲ H.O.T. 상표권 소송...김경욱 전 SM 대표 패소 확정 /사진 뉴시스